

‘식민화된 주체’의 분열과 ‘말더듬이’

—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 다시 읽기*

최 석 열**

요약

본고는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을 제국-식민지 체제에서 국민국가 체제로의 이행 과정 속에서 형성된 '식민화된 주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얼어붙은 입」은 재일조선인의 민족 정체성이나 디아스포라적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작품 속 말더듬이 역시 언어적 결함이나 정체성의 혼란을 표상하는 장치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식민주의의 경험이 주체의 무의식에 남긴 균열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 동일성의 실패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고는 한수영의 '식민화된 주체' 개념과 라캉의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얼어붙은 입」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작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더듬이와 모세 모티프, 연구 행위, 미찌코와의 관계 등을 식민화된 주체의 분열을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로 읽고, 말더듬이가 단순한 언어적 결함이 아니라 상징 질서에 온전히 편입되지 못한 식민화된 주체의 증상임을 밝혔다. 또한 작품 전반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실패의 서사는 식민주의의 경험이 주체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결과이며, 자기 동일성을 획득하려는 시도가 끝내 좌절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점을 논의하였다. 결국 본 논문은 「얼어붙은 입」을 식민주의의 경험이 주체의 무의식에 남긴 흔적을 재현하는 텍스트로 읽음으로써, 김학영 문학을 식민화된 주

* 본 논문의 초고는 2026년 8월 12일~15일에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제7회 인문한국학 국제학술대회 〈전환기의 동아시아 인문한국학: 지식의 혁신과 공공성의 확장〉에서 한 차례, 2026년 8월 26일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대학원생 연합 국내 학술대회 〈식민주의의 잔여, 전후의 주체: 동아시아 문학의 기억·번역·연대〉에서 다시 한 차례 발표되었다. 각각 토론을 맡아주신 성균관대 박진영 선생님과 연세대 양순모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더불어 더 나은 글이 될 수 있도록 논평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체의 형성과 자기 동일성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주제어: 재일조선인, 김학영, 식민화된 주체, 디아스포라, 얼어붙은 입, 라캉, 정신분석

목차

1. 머리말
2. 언어적 타자로서 ‘말더듬이’: 주체 분열의 표상
3. 주체 분열의 봉합 시도와 불가능성
4. 맺음말

1. 머리말

본 논문은 김학영의 소설 「얼어붙은 입」(1966)을 기존의 해석 및 비평 방식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다른 관점이란, ‘폐전-해방’을 기점으로 그들이 처하게 된 이중 언어적 상황을 중심으로 그의 문학을 재해석하려는 것을 뜻한다. 다케다 세이지와 이소가이 지로의 선구적인 연구를 시작으로, 한국에서도 재일조선인 문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2세로 분류되는 이들의 문학에 관해서는 정체성론과 세대론을 아우르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제출되었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는 그들의 문학을 재일조선인의 저항이나 수난의 서사로 해석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물론, 그들의 문학을 복잡성과 혼종성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함으로써 수난의 서사로 환원하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식민지 시기와 패전 이후 일본 내 재일조선인 사회를 둘러싸고 형성된 여러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가 재일조선인 2세 문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일조선

인 2세 문학을 좀 더 포괄적인 역사적 시야에서 조망하기 위해서는, 다케다 세이지가 적확하게 지적했듯, 재일조선인 2세의 유소년기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¹⁾ 특히 ‘패전-해방’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를 ‘단절’이 아닌 ‘연속성’의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의 논의처럼 이중 언어적 상황이 주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가 그들의 언어적 정체성이나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식민화된 주체”²⁾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³⁾ 단순화할 수는 없겠으나, 이들의 문학이 출발하는 자리

1) 다케다 세이지,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옮김,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2016, 35~37면. 다케다 세이지는 전후에 태어난 ‘재일’ 세대는 전시하 일본에서 성장기를 보낸 2세대가 ‘천황제 파시즘’을 체험했다는 것을 의외로 잘 의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2세대들에게 급선무는 ‘천황제 파시즘’에 열중했던 과거의 자신과 ‘사회주의’ 민족의 자식이라는 아이덴티티를 ‘단숨에’ 부여받게 된 현재의 자신과의 비틀림을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였다고 주장한다.

2)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81면. ‘식민화된 주체’란 쉽게 말해 다양한 식민주의의 경험과 기억을 지니고 있으면서, ‘식민주의 이후’에도 여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주체’를 가리킨다. 본래 이 개념은 한국의 전후세대와 전후문학을 재해석하기 위해 한수영이 고안한 개념이다. 그는 라캉의 주체 개념과 그레고리 베이트슨의 이중 구속 이론을 전유하여, ‘식민화된 주체’가 ‘국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두 번의 주체화 과정을 겪었음을 지적한다. 첫째는 유소년기에 일본의 ‘국어’를 통해 다민족을 표방한 국민국가의 경계를 ‘초월’한다는 제국의 기획에 동참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후 포스트 식민사회에서 이러한 제국의 기획이 물거품이 됨에 따라 ‘민족주의’나 ‘국민주의’와 긴밀히 접속하면서 ‘단일한 국민국가’ 체제로 편입되는 것이다. 한수영에 따르면, 유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이 두 번의 주체화 과정에서 ‘식민화된 주체’의 내면에는 혼란과 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모순과 착종은 그들의 문학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이러한 한수영의 ‘식민화된 주체’라는 개념에 관한 ‘전유’는 재일조선인 2세로 분류되는 이들의 문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유용한 방법론적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나고 자란 재일조선인 2세는 유소년기 제국의 범민족적이고 초국가적인 이데올로기 기획에 (무)의식적으로 동참해야만 했으나, 일본의 패전 이후 국민국가로 체제가 재편됨에 따라, 민족과 국민국가라는 복수의 기표 가운데 하나에 자신을 동일시해야 하는 ‘이중 구속’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 본문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은 적잖은 당혹감과 혼란을 느끼며,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서 오는 분열과 모순을 문학이라는 언어적 형식을 통해 풀어낸다. 때로는 유소년 시절의 경험을 은폐하기도,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텍스트에 드러내기도 하면서 그 혼란을 나름의 방식으로 끌어안으려 했던 것이다.

는 체제가 재편됨에 따라 과거 황국 소년이었던 기억을 청산하고 민족 이데올로기의 요구에 응해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할 것인지, 혹은 이미 정신과 신체에 각인된 과거의 경험을 껴안는 방식으로 주체의 위치를 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문학 연구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에 관한 사회학·역사주의적인 연구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이 이러한 사실을 다시 되짚으며 김학영의 문학을 다시 읽고자 하는 까닭은, 그들이 혼란을 경험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러한 혼란이 그들의 문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문학 연구 경향이 (신)역사주의적이고 탈-텍스트주의적으로 전환되었다는 논의를 상기해 보면,⁴⁾ ‘식민화된 주체’로서 이들이 경험한 혼란과 분열이 문학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는지보다는, 그들이 제국의 기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존재이고, 전후 일본 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이 ‘마이너리티’로 규정됨에 따라, 그 혼란성을 견디기 위한 한 방안으로 문학을 창작했다는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이다. 즉, 그들의 문학이 가진 지향에 관해 논의하면서도, 어떤 역사적·정치적 맥락 안에서 그들의 문학이 탄생했는가를 좀 더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문화사적이고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이들이 어떤 담론 및 사건과 공명하며 문학을 창작했는지 밝혀내는 작업은 재일조선인 문학 활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애와 정치적인 활동을 전반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⁵⁾ 다만, 작품의 세밀한 독해를 통해 왜 그들의 문학은 그렇게 말

3) 앞선 다케다 세이지는 1세대와의 ‘분절된’ 2세대만의 특수성을 부각하기 위해 1945년 이전 천황제의 자식으로 자랐던 이들의 기억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시기와 그 이후를 연속선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선구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하재연, 「식민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2012.

5) 특히 앞서 언급한 조은애의 논문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단순히 디아스포라/민족문학의 범주

하고 있는가 혹은 말하지 못하는가에 관해 밝히는 작업도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들의 문학(적 실천)은 제국과 국민국가, 그리고 민족의 담론 등 복수의 기표가 주체에게 서로 다른 동일화를 요구하면서 발생한 주체의 ‘분열’이 ‘언어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들의 문학이 흥미로운 이유는, 문학적 원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망각의 기제를 통해 은폐하려고 하면서도, 끝내 그것을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는 말과 글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지만, 과거의 모습 역시 자신의 본질적인 측면임을 애써 부정할 수는 없는 현실이 ‘징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분열적이고 모순적인 상황에서 이들의 딜레마는 출발하는 셈이다. 김시종이 비교적 늦은 나이에 황국 신민이었던 과거의 자신에 대해 ‘고백’했던 모습을 상기해 본다면, 과거와의 결별을 요구했던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외압과 주체화의 근원을 구성하는 시기와 흔적을 주체 내부에서 제거해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언어적 형식으로 되돌아온 그들의 문학은, “결핍과 욕망의 좌절”이 “가시적으로”⁶⁾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⁷⁾

가 아니라 남·북·일을 둘러싼 냉전 구조 속에서 이언어성과 귀환 불가능성을 토대로 ‘문화적 월경’을 수행하며 스스로를 재현하는 ‘자기민족지적 글쓰기’로 읽어냈다는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윤주연, 「라캉의 관점에서 본 디아스포라와 주체」, 『통일인문학』 99, 2024, 291면. 윤주연은 욕망의 대상이자 좌절은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국민국가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서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디아스포라는 이런 결핍과 욕망의 좌절을 더욱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기에 그들을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7) 김시종은 “나는 철저하게 일본의 황민화 교육을 받았습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때까지 오랜 세월을 걸쳐 배양해 온 모든 것, 그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밑바닥에서부터 뒤집혀 버렸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못해 극단에서 극단으로 자기를 바꿔야만 했다고 고백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시종, 윤여일 옮김,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2017 참조) 김시종의 문학이 이러한 ‘극단에서 극단으로의 변화에 대한 실천이라는 점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이러한 고백을 토대로 했을 때, ‘식민화된 주체’로서 재일 2세의 문학에는 ‘변화’에 대한 고민이 투영되어 있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학영의 문학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의 텍스트에는 이러한 ‘이중 구속’ 상태에서 겪은 주체의 혼란과 당혹감과 그에서 비롯된 분열적인 면모에 관한 서술이 풍부하게 드러난다. 특히 무기력하고 항상 불안을 느끼는 등장인물의 성격, 그리고 소설이 대부분 실패와 좌절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식민화된 주체가 겪어야 했던 복합적인 감정들이 말더듬이 모티프나 자살 충동과 같은 작가 특유의 서사적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말더듬이와 불우의식, 그리고 가부장적 아버지의 폭력이라는 작가 개인의 특징과 미학적 형식으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는 ‘말더듬이’라는 신체적 결함이나 그의 불우의식에 주목해, 그의 문학을 주로 개인사·가족사적 층위나 민족적 소외의 표상으로 읽어 왔다.⁸⁾ 이런 시각이 김학영 문학을 해석하는 주된 방법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오히려 그가 이중 언어적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과 그것이 주체 형성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즉, ‘말더듬이’ 모티프가 일본어를 이미 자신의 일상 언어로 사용하면서도, 패전 이후에는 조선어라는 민족의 언

8) 김환기는 김학영의 말더듬이가 작품에 빈번히 등장하는 이유가, 현세대가 안고 있는 심리적 불안이나 이방인 의식을 내향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들 앞에 가로놓인 벽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련의 패배주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김환기, 「김학영 문학과 恨·'恨'의 내향적 승화를 중심으로」, 『일본학』 21, 2002) 한편 이한창은 말더듬이나 민족 담론보다, 가부장적인 폭력이 김학영 작품을 해석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준거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말더듬이나 민족의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버지의 폭력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김학영의 문학은 아버지의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한창, 「소외감과 내향적인 김학영의 문학세계」, 『일본학보』 37, 1996) 이 외에도 김학영의 생애와 문학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명희·정덕준, 「재일 한인소설 연구-김학영과 이양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2, 2007; 김환기,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론」, 『언어일문학연구』 39, 2001; 이한창, 「일기와 작품을 통해 본 김학영의 자살 원인」, 『일본어문학』 47, 2010; 이재봉, 「틈새 인간의 말더듬이 존재론-김학영과 그의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43, 2010; 권문경,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에 나타난 分身구조와 작가의 자살 욕망 지우기」, 『일본어문학』 54, 2011; 권성우,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에 대한 세 가지 해석과 논점」, 『한민족문화연구』 60, 2017.

어를 새로운 자기규정의 근거로 요구받게 된 이중의 언어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식민화된 주체’의 분열과 자기 동일화의 실패의 징후가 ‘언어’를 통해 가시화된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말더듬이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보는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식민화된 주체’의 자기 동일화의 실패 과정을 드러내는 장치로 읽어보고자 한다. 즉 ‘말더듬이’ 모티프를 ‘식민화된 주체’의 분열과 혼란이 가시화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⁹⁾

김학영은 자신이 문학을 창작하는 이유와 작품에서 ‘말더듬이’를 비롯한 자살, 불우의식, 폭력적인 아버지의 표상 등의 요소들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직접 밝히고 있진 않다. 다만, “일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교육을 받고, 일본의 풍토 속에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일본에서 살아갈 자신은 자기 안의 일본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¹⁰⁾이라는 언급을 통해, 창작의 원체험이 유소년 시절의 기억과 경험에 있음을, 그리고 그의 문학적 지향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간극에 대한 성찰적 사유에 놓여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그의 문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파편적으로 흩어진 징후들은 과거와 현재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9) 그렇다면 ‘말더듬이’를 식민화된 주체의 분열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브루스 핑크는 담화에는 말하려고 의도했던, 혹은 말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루어지는 의도적 충위와, 변형되거나 왜곡된 단어를 사용하거나 말을 더듬는 등 말실수라는 비의도적 담화의 충위 두 가지의 변별적 충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주체가 ‘말실수’를 하는 이유는 문득 다른 기억들이나 사실들이 발화하는 시점에 도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다른 종류의 말은 ‘어떤 타자’에게서 연원하는데, 프로이트는 이를 ‘무의식’이라고 부른다. 라캉이 ‘무의식은 타자의 담화’라고 분명하게 진술한 것처럼, 말을 더듬는 행위나 단어를 혼동하는 말실수를 하는 것은 결국 주체의 무의식 내부에 있던 타자의 담화가 그 순간 도래하는 것이다. (브루스 핑크, 이성민 옮김, 『라캉의 주체: 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b, 2023, 23~25면) 이런 맥락에서 ‘말더듬이’란 하나의 증상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설에 나타나는 말더듬이 모티프를 ‘식민화된 주체’에게 도래하는 증상의 차원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10) 金鶴泳, 「まなざしの壁」, 『土の悲しみ 金鶴泳作品集Ⅱ』, クレイン, 2006, 292면.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김학영 자기 자신의 개인사나 가족사를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이면서도 미학적 형식으로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¹¹⁾ 따라서 본고는 그의 문학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말더듬이 모티프가 가장 전면에 드러난 작품 「얼어붙은 입」을 통해 체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김학영이 어떤 방식으로 그것과 접촉하며, 한편으로 그러한 착종과 모순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 및 해소하려고 했는지 재구성해 보고자 한다.

2. 언어적 타자로서 ‘말더듬이’: 주체 분열의 표상

「얼어붙은 입」은 ‘말더듬이’라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신경쇠약에 시달리는 동경대학 공업화학과 대학원생 최규식의 고통을 주로 다루고 있다. 실제로 작품의 주된 서사는 그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지만 결국 좌절하게 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런데, 김학영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이런 절망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 보인다. 김학영은 본격적으로 최규식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 작품 앞면에 출애굽기 제4장 10절과 13절의 내용을 수록한다. 주지하다시피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자신의 언어적 결함으로 인해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자 신이 그를 위로하고 결국 그 믿음 아래 명령

11) 이재봉은 김학영의 ‘말더듬이’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이방인 의식’이나 ‘내향적 고뇌’ 등으로 읽는 것은 작가의 개인사·가족사적 측면에서 보면 타당한 접근이지만, 이와 같은 태도는 김학영 문학을 편협하게 평가할 위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는 ‘언어’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그는 김학영 문학에 말더듬이 모티프가 반복적으로 서사화되는 것은, 결국 디아스포라의 ‘언어’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와 상관관계 속에서 논의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재봉, 위의 논문, 397면) 본 논문 역시 이재봉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면서, 그가 왜 말더듬이 모티프를 문학에 반복적으로 호출하고 있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을 문제없이 완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김학영은 작품에 모세를 격려하고 믿음을 주는 신이 등장하는 구절은 제외하고 모세의 두려움과 불안만을 작품에 인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가 작품에 인용한 절은 자신의 언어적 결함으로 인해 신에게 “나는 입이 뻗뻗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여, 원하옵건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는 장면인¹²⁾ 10절과 13절이다. 11절과 12절이 바로 신이 개입하여 모세의 회의를 거두어가는 내용이라는 점을 떠올려 본다면, 그가 성경의 구절을 편집해서 수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인용의 차원을 넘어 작가의 특정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김학영이 「얼어붙은 입」을 통해 초월적 존재의 힘에 기대어 한계를 극복하는 주체의 서사보다는, ‘말할 수 없음’의 상태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인물의 서사를 형상화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해당 소설에서 성경 속 모세의 이야기와 최규식의 서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포개어지는 것일까. 이것을 김학영의 작품 세계의 가장 처음에 놓이는 실패의 서사로 규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그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 서사를 추적하면서, 이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 것이 해당 절의 주된 목적이 될 것이다.

소설은 학과 동급생이자 자신처럼 ‘말더듬이’ 증상을 앓고 있던 이소가가 신지(神機新治)가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최규식이 그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말더듬이로서의 고통을 반추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개된다.¹³⁾ 소설에서 그는 3개월마다 돌아오는 실험 결과 발표 보고회에

12) 김학영, 강상구 역, 『얼어붙은 입』, 한진출판사, 1985, 15면. 이후 작품 인용 시 괄호 안에 면수만 표기한다.

13) 최규식에게 이소가의 죽음은 단순한 상실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이소가의 죽음은 마치 최규식의 ‘일부분’이 상실된 것 같은 착각을 자아낸다. 말더듬이라는 공통향을 매개로 연결된 두 인물이 작품에서 서로 거울상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실상은 둘로 나누어진 작가의 분신(分身)이기도 하다(권문경, 위의 논문, 119면)는 지적을 떠

서 발표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다. 그가 발표회를 생각할 때마다 공포감에 휩싸이는 것은 단연 타자 앞에서 말을 더듬는 신체적 결함 때문이다. 최규식은 실상 혼자 낭독할 때는 말을 더듬지 않지만, 누군가의 앞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등 특정한 상황에 놓이면 입이 뻗뻗해짐을 느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5년 전부터 매일 30분씩 발음을 연습하지만, 이는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최규식의 말더듬이는 이방인(소외) 의식이나 “사회공포증”¹⁴⁾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최규식이 회상하는 과거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그의 말더듬이 증상에는 그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여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회 발표를 앞둔 최규식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식으로 자기 위안을 하며 집으로 가기 위해 전차에 오른다. 그런데 전차 안에서 한국에 관련된 책을 읽던 그는 문득 자신의 과거와 ‘언어적 정체성’에 대해 곱씹기 시작한다.

한국인이면서 나는 아직 한국말을 모른다.

일본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죽 일본학교만을 다녀온 나는 한국으로부터 격리된 곳에서, 혹은 조국과 단절된 세계에서 자라왔다. (중략) 어쩌면 망각하기 십상인, 내 안에 들어 있는 한국인을, 나는 전차 속에서의 학습을 통해서나마 조금씩 회복해 간다. 아니 어쩌면 회복하려고 힘쓴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 회복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회복이라 함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려 놓

올려 보면, 그의 죽음은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사건인 동시에, 최규식이 자신의 내면에 ‘분열’이 존재하고 있음을, 그 균열을 메우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 14) 송명희와 정덕준은 「얼어붙은 입」에서 보이는 최규식의 ‘말더듬이’ 증상을 일본인들 앞에서 일본어로 말을 해야 하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사회공포증이라고 보았다. (송명희·정덕준, 위의 논문, 6면)

음을 뜻한다. (중략)

나는 내 속에 잠들어 있는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깨닫거나 혹은 획득함으로써, 내가 한국 사람이자 일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리 내가 일본인과 똑같은 낯짝을 하고 있고 일본인과 똑같은 형태로 살아간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 (중략) 한국과 관련있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게 있어선 왜 그런지 권태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이상하게도 번거롭고 진력난다. 때로는 세상에 다시 없을 지경으로 우울한 일일 때도 있다. (56 강조-인용자)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최규식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조선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한다는 일종의 공포심이다. 이는 내면에서의 ‘민족의식’이란 학습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자책으로까지 나아간다. 그가 ‘권태롭기 그지없는 일’이자 ‘우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념으로서의 민족의식”(57)을 학습을 통해 구체화하려는 이유는 민족의 언어와 역사를 회복함으로써, ‘절대로 일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패전-해방’ 이전 상황에서 국어인 ‘일본어’ 발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 온전한 신민으로서의 결여 요인이었다면, 이후 일본 내 재일조선인 사회에서는 어눌한 조선어를 구사하거나 아예 못하는 것이, 온전한 조선인으로서 자격 결여를 상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언어는 일본어이지만, 자신을 조선인이라고 규정하기 위해 요청되는 언어는 정작 발화 불가능한 조선어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릴라 간디에 따르면 포스트 식민 주체들은 “식민주의 이후 반식민 ‘독립’ 민족 국가들이 출현할 때 흔히 식민 과거를 망각하려는 욕망이 수반되며, 역사를 스스로 창안하려는 충동이나 새롭게 출발하려는 욕구-식민 종속에서 비롯된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지워버리려는 욕구-의 징후”¹⁵⁾가 발현된

15)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16면

다. 최규식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겠으나, 그에게 있어 ‘학습’은 불가능성을 담지하면서도, 이미 신체와 정신에 깊숙이 각인된 유년의 체험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려는 욕망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학습’을 거듭할수록 그가 오히려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억압된 과거와 그것을 부정하려는 현재 사이의 균열은 학습을 통해 봉합되기는커녕 더욱 확대된다. 그리고 이처럼 봉합되지 못한 균열은 결국 최규식을 ‘말더듬이’라는 언어적 타자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에 관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에게서는 더없이 우울한 일이다. 그것은 그러한 책들을 읽으므로서, 한국인이 맛보아야 했던 비참한 상황이,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엄연히 실재해 온 그것이, 지금도 계속 실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마음 답답해질 뿐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 전반에 대하여 증오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증오심을 갖게 되므로서 지금까지 나와 아주 친밀하게 지내왔던, 내 주변과의 사이에 돌연 단층이 생겨, 내가 이방인임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새삼스러운 눈으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옆에 앉은 남자랑 혹은 앞에 앉은 여자가 모두 일본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러기에 설령 내가 그들과 똑같은 얼굴을 짓고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들일 수 없으며, 일본인이 아닌 조센징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사무치게 느낀다. (63)

소설에서 최규식의 ‘말더듬이’는 태생적인 신체적 결함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실어증이나 유전적 차원에서의 병리적인 상황에서 기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실제로 최규식은 “말 상대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는 그때 그때 심신상태의 미묘한 차이에 따라”(31)서 자신의 말더듬이 증상이 발현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그가 분명하게 말을 더듬는 순간은 “동료들은 떠들썩하게 얘기를 주고 받긴만 또 나 혼자만 묵묵히 있구나, 하는 자기 처지를 의식”하는 때이다. 그리고 위의 인용문을 통해, 그가 자기 처지를 의식하는 순간은 ‘나는 그들일 수 없으며, 일본인이 아닌 조센징이라는 사실을’ 느끼는 때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가 “질식할 것 같은 우울”(31)을 자아내는 ‘언어의 고랑’으로 빠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동료들과 자신이 구사해야 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사실과 더불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균열의 틈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기 때문일 터이다. 따라서 그의 말더듬이 증상과 그로 인한 불안은 곧 그들과 똑같은 얼굴로 일본에서 태어나서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죽 일본학교만을 다녔지만, 결국 자신은 그들일 수 없으며 그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자기 부정적 의식이 주체에게 돌아오는 순간에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¹⁶⁾

‘언어적 타자’로서의 불안 의식은 최규식의 언어적 정체성에 관한 일종의 징후적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¹⁷⁾ 브루스 핑크에 따르면, 주체가

16) 이는 같은 말더듬이를 소재로 한 작품 「흙의 슬픔」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흙의 슬픔」에서 화자는 「얼어붙은 입」의 최규식처럼 “말더듬이기 때문에, 늘변 때문에 인간관계가 여의치 않고, 세상 자체와의 교섭도 순조롭지 않아서, 거기서 파생하는 삶에 대한 고통감이 원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뒤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말더듬이기 때문에 아픔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아픔이 나로 하여금 말더듬이가 되게 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김학영, 「흙의 슬픔」, 강상구 역, 『김학영 소설집-흙의 슬픔』, 일선기획, 1988, 28면) 흥미로운 사실은, 해당 소설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아픔’이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사상(捨象)한 데서”(김학영, 「흙의 슬픔」, 위의 책, 48면) 생겨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는 곧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말더듬이 모티프를 이중언어적 상황에서 발생한 주체의 분열이 발화의 차원에서 가시화된 형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17) 핑크는 ‘언어의 타자’에 관한 라캉의 논의를 전유하여 ‘언어적 타자나 언어로서의 타자’에 관해 논의한다. 그에게 언어적 타자는 나의 발화에 대해 강제적으로 혹은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타자이다. 즉 주체의 발화가 말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토대로 규정되는 것이다. (브루스 핑크, 이성민 옮김, 『라캉의 주체-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b, 2010, 28~29면) 이런 상황에

하는 “말실수”는 “어떤 다른 층위에서-무의식의 층위에서-또 다른 사고가 당신을 선점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말실수할 당시, 그에 대한 “생각을 활성화시킬 아무것도 없었을 수 있다”하더라도, 주체의 내면에는 “어떤 무의식적 되새김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에 잠재된 사고가 도래하게 되면¹⁸⁾ 주체는, 발화를 하는 데 있어 말더듬이 같은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브루스 핑크의 논의를 참조한다면, 소설에서 최규식의 ‘말더듬이’ 증상은 단순히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무의식’에 잠재된 주체의 결여가 반복적으로 주체에게 도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학적 형식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¹⁹⁾

이처럼 최규식에게 언어의 문제는 단순히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의 언어로 타자 앞에서 발화한다는 것은, 곧 주체가 어느 기표에 종속되어 있는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최규식은 아직 주체의 존재론적 근거를 보증해 줄 언어(기표)를 선택하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그는 어느 한면의 언어에 자신을 동일화함으로써 분열을 해소하기보다, 우회적으로 불안과 혼란을

서 주체는 근원적인 형태의 소의를 경험하게 되고, 이는 불안을 초래한다. 소설에서 최규식이 말을 더듬는 근본적인 원인은 타자(의 언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최규식 스스로 자신의 발화가 타자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이를 극도로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최규식은 발화 시 모(국)어를 선택함으로써 스스로를 규정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말이 타자에 의해 어떻게 규정되고 의 미화될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의식했으며, 바로 그 때문에 쉽사리 발화하지 못한 채 말을 더듬으며 혼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다.

18) 브루스 핑크, 위의 책, 45면.

19) 이재봉은 김학영(문학)의 ‘말더듬이’(혹은 표상으로) 증상의 기원이 일본으로 이주해 온 어머니/할머니의 ‘더듬는 일본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일본에 살면서 일본어를 잘 못한다는 것은 실제 말을 더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말더듬이 증세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결국 김학영과 그의 문학에 나타나는 ‘말더듬이’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재봉, 위의 논문, 405~407 참조) 본 연구와 방향은 다르지만, 어머니/할머니가 김학영, 혹은 그의 문학에 형상화된 인물의 발화 ‘실패’를 먼저 경험했던 인물이고, 그를 통해 슬픔과 고통, 두려움을 경험했다면 이재봉의 지적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유예할 수 있는 다른 매개를 찾아 나선다. 작품에는 이러한 시도가 총 세 차례 반복해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연구와 실험에 몰입함으로써 언어라는 존재 자체를 일시적으로 망각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소가이라는 인물을 통해 자신의 결여를 외화시키려는 것이며, 세 번째는 미찌꼬라는 여성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발화가 필요 없는 상태에서의 타자와 합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3. 주체 분열의 봉합 시도와 불가능성

먼저, 연구와 실험에 자신의 불안을 위탁하려는 그의 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연구는 바로 투쟁이다!」라고, 언제인가 지도교수가 새로 들어온 졸업 연구생들을 향해서 외친 적이 있다. 그 말이 맞다고 나는 생각한다.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와 남과 그리고 여러 타인들로 형성된 사회와의 투쟁인 이상,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활동양식인 연구작업** 또한 투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 있어서는 투쟁이란, 연구를 한다든가 실험을 한다든가 할 때의 그 공허함과 맞서 싸우는 투쟁 그것이다. 내게 있어서 실험이란 정말 무의미한 일이며, 그 무의미함은 흡사 바깥의 물을 번갈아 갈아 담는 끝없는 작업의 무의미함과 동질의 것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의 행위 가운데서 무의미하지 않다고 호언장담 할 수 있는 행위가 과연 있을까? (중략)

나를 충실하게만 만들면, 삶 또한 충실한 것으로, 뜻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남들과 똑같이, 나도 삶의 뜻을 찾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의 충실함을 갈망한다.** 그렇지만 나 자신을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 나는, 아니 인간은 자기 자

신을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나로서는 아무런 확신도 서지 않는다. (중략)

아무리 공허한 작업일지라도, 온종일 그 일에 매달려 있노라면, 인간은 일종의 무아경에, 무의식 무감각의 경지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차라리 쾌감일 수 있을지언정, 결단코 고통은 아닌 것이다. (26~28 강조-인용자)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최규식에게 연구와 실험은 단순히 개인의 학술적인 업적을 성취하기 위한 활동만은 아니다. 그에게 있어 연구란 종종 공허함과 덧없음을 동반하기는 하지만, 인간으로서 ‘삶의 뜻’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실천적 행위이다. 동시에 그것은 자신을 몰아매는 ‘고통’, 즉 말을 더듬는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망각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도피책’이기도 하다. 그가 연구 활동을 매개로 몰입의 경지에 빠져들고자 하는 이유는 남들과 똑같이 현실에 ‘충실함’을 갈망하기 때문이다. 타자처럼 삶에 충실한 행위가 무엇인지 작품에 드러나 있진 않지만, 그가 ‘식민화된 주체’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하나의 ‘언어’로써 주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짐작해볼 수 있다. 유소년기와 성인이 된 후 주체 형성 과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주체가 서로 다른 상징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식민 지배와 해방을 거치면서 주체가 하나의 상징계에 안정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기 어려워졌으며, 그 과정에서 주체가 근원적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금 상상적 동일시를 꿈꾸는 일종의 퇴보를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불완전한 주체성은 완전한 동일시에 대한 또 다른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다. 작품에서 연구란 바로 이런 역할로 작용한다. 최규식은 잠시나마 불안을 유예하기 위해 타자를 인식할 필요가 없는 연구에 몰입하게 된다. 다시 말해 이는 “자기 존재를 직접적으로 재현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상징”²⁰⁾한다.

하지만 이는 최규식 스스로 확실하진 않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실패가 예상된 행위였다. 실제로 그의 몰입이 깨지는 순간은 연구실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실험을 하고있는 동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이다. 즉 주변에 ‘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점에서, 말더듬이라는 결여가 다시금 주체에게 되돌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규식에게 있어 “그들이 존재해 있다고 하는 것은 곧 언어가 존재해 있음을 뜻하거니와” 그렇기에 최규식을 “압박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라 기보다는, 그들이 내뱉는 언어 그것”(30)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몰입에서 실패를 맞이한 최규식은 그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매개를 찾아내는데, 그것은 동급생 이소가이 신지이다. 「얼어붙은 입」에서 최규식과 이소가이는 독특한 관계를 형성한다. 두 인물은 표면적으로는 ‘말더듬이’라는 신체적인 결함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증상이 발현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내면의 분열로 인해 “까닭 모를 적막감”이나 “비참”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발걸음”(67)을 내딛지 못해 고뇌하던 최규식은, 학교에서 우연히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앓는 이과(理科) 1계열 4B반의 이소가이를 알게 된다. 이소가이는 과거 부친과 일했던 조선인 ‘최씨’와 최규식이 같은 성씨라는 점에 흥미를 보이고, 최규식은 그가 ‘말더듬이’라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나는 그때 정말 이상할 만큼 말을 유창하게 잘했다. 그때 뿐만 아니라 이소가이와 얘기할 때면 나는 조금도 더듬거리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생각해도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었다. 그녀석도 말더듬이라는 점 때문에, 아니 나보다도 훨씬 지독한 말더듬이라는 그점 때문에, 마음을 폭 놓고 지껄이니까 그리 되는 것인지. (중략)

20) 윤송아, 위의 논문, 86-87면.

그러다가, 나중서야 알아낸 사실이지만, 이소가이는 끝끝내 내가 그와 마찬가지로 말더듬이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죽어버렸던 것이다. (중략)

내가 그에게 접근해 간 것은, 그가 말더듬이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라곤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한 클래스의 다른 인간들 대하듯 하면 했지, 중뿔나게 그에게로 다가가거나 하진 않았을 것이다. (중략)

그렇게 그에게 접근해 간 나를, 그는 대관절 어떻게 생각했을까? <혹시 이놈도 말더듬이인지 모른다>라고, 어슴프레하게나마 의심해 본 적도 없단 말일까? (98~99)

인용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최규식은 “난발성(難發性)의 지독한 말더듬이”인 이소가이를 보며 어딘지 모를 “안도감”(90)을 갖게 된다. 심지어 그의 말더듬이를 볼 때 최규식은 자신도 ‘말더듬이’였다는 사실과 두려움을 잊게 된다. 흥미롭게도 이소가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순간만큼은, 그 역시 “발성(發聲)의 산”(31)을 넘을 필요 없이 “떠들썩하게 얘기를 주고 받”(33)는 연구실 동료들과 입장이 같아지는 것이다. 즉 최규식의 (무)의식에서 이소가이가 ‘언어적 타자’로 규정됨에 따라, 자신은 동료들과 함께 잡시나마 ‘완전한 자기’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된다.²¹⁾ 그리고 이 지점에서 최규식은 ‘타자’의 증상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은폐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능성을 본 최규식에게 언어적 결함은 더 이상 단순한 발화 ‘불가능’의 상태로 머물지 않는다. 이제 최규식은 이소가이 앞에서 자신의 결여를 숨기기 위해 ‘침묵’을 택한다.

이때 ‘침묵’은 말더듬이처럼 ‘말할 수 없음’의 상태가 아니라, 자기 결여를 은폐하고자 하는 ‘말하지 않음’이라는 자발적이고 의지적인 차원의 행위로 전환된다. 이러한 ‘위장’ 혹은 ‘행세(passing)’는 자신이 욕망하는 지

21) 맥락은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실제로 브루스 핑크는 타자가 언어를 통한 자기 규정성에 대한 불청객이자 침입자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욕망의 단서를 제공하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엇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브루스 핑크, 위의 책, 29면)

위를 달성하고 손에 넣으려는 자기표현과 자기 표상을 뜻한다. 이는 곧 정상 인간과 이탈 인간을 구분하는 경계를 침범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결국 욕망하는 성취 지위를 잘 수행하면서 동시에 혐오하는 귀속 지위를 잘 숨겨야 한다.²²⁾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최규식에게 ‘행세’란 보다 중층적이고 복잡한 층위를 갖는다는 점이다. 존 리가 지적한바, 재일조선인의 맥락에서 ‘행세’는 흔히 민족적 차이를 노출하지 않으면서 일본인과 구별되지 않는 위치를 점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소가이는 이미 최규식이 조선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최규식이 행세를 하는 목적은 민족적 차이를 숨기려는 것보다는 ‘말더듬이’라는 증상을 비가시화하려는 것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최규식의 무의식, 즉 그가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지 알 수 있다.

〈너 말더듬이구만. 나도 말더듬이란 말야.〉

한 번쯤 그에게 이런 말을 던져도 괜찮았을 것이다. 아니, 던졌어야 옳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결국 그 말을 끝끝내 못하고 말았다. 말더듬이가 돼 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신이 말더듬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여간 큰 굴욕이 아니며, 또 더군다나 말더듬이한테, 〈너 말더듬이구만〉 어찌고 지껄인다는 것은 그 말더듬이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일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104~105)

최규식은 “꼭 내가 그렇듯 더듬거리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저리”(103)는 고통에 사로잡히면서도,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서 이소가이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양면성’을 드러낸다. 그런 면에서, 이소가이는 ‘동일시’ 대상인 동시에 끝끝내 주체에 의해 승인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인’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최규식은 왜 민족적 차이가 드러난 상황은 감당할 수 있으면서도, ‘말더듬이’라는 사실은 끝내 고백하지 못했던 것일까.

22) 존 리, 김혜진 옮김, 『자이니치』, 소명출판, 2019, 47면.

이는 이소가이 앞에서 행세 자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그 은폐의 대상이 민족적 차이에서 ‘말더듬이’라는 또 다른 결여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규식에게 ‘말더듬이’란 이소가이처럼 단순한 병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징 질서에도 자신의 위치를 안정적으로 고정하지 못했다는 사실, 즉 ‘언어적 정체성’이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불안이 발화의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징후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최규식에게 ‘말더듬이’라는 신체적 반응이 발현된다는 것은 결국 주체의 ‘무의식’²³⁾에 억압된 분열을 계속해서 누설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만약 최규식이 누군가에게 ‘말더듬이’ 증상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의 굴욕과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와도 같다. 물론 이소가이에게는 단순히 같은 신체적 결함에 대한 고백일 수 있겠으나, 최규식 스스로에게는 자신이 이소가이를 통해 외화(外化)했던 결여가 실은 자신의 것이었음을 타자 앞에서 승인하는 행위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최규식은 자기 결여가 노출되는 상황을 끝까지 회피하고자 하며, 개인 수준에서 ‘행세’는 도처에 발각될 위험이 존재하고 거짓 삶을 산다는 윤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안을 자아낸다²⁴⁾는 지적처럼, 그 ‘불안’으로 인해 결국 둘 사이의 동질성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의 태도로 나아간다.

23) 라캉이 말하듯, ‘무의식’은 상징계의 개입이라는 외상적 사건을 계기로 발생한, 즉 억압된 결여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형식을 말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대화, 그리고 (말로 표현되는 한에서의) 다른 사람들의 목표, 열망,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브루스 핑크, 위의 책, 35면) 주체는 의식과 이런 무의식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거짓된 자기 감각과 무의식 속에서의 언어(기표 사슬)의 자동 작용 사이에 분열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주체는 바로 이 분열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분열은 앞서 말한 타자에 의한 언어 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핑크가 언어 안에서의 소외라고 지칭한 것과 등가적이다. 주체가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열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노출된 면과 감추어진 면을 낳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브루스 핑크, 위의 책, 97면 참조) 이런 맥락에서, 소설 속 최규식이 의식적인 동일시와 무의식적인 부인을 함께 하는 모습에서 식민화된 주체의 ‘분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24) Goffman, Erving,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ew York: Jason Aronson, 1974. (존 리, 위의 책, 48면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아무 말도 걸지를 말고 혼자 조용히 있게 해주는 것”이 “유일한 도움이요 최선의 위로”(105)이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다는 최규식의 언급은, 침묵을 배려의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자신의 회피를 정당화하는 합리화의 방어기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소가이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최규식이 정작 자신에 대한 것이 라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을 “쓸쓸하게 만들었고, 그런 적막감”으로 인해 죽음 “충동”(122~123)을 느꼈다고 유서를 남기며 자살하게 된다. 소설에서 이소가이의 죽음은 최규식이 끝내 승인하지 못한 채 유예해오던 결여가 다시 최규식에게 사후적으로 되돌아오는 사건이다. 최규식은 이소가이를 통해 자신의 증상을 외화하고, 그를 매개로 언어적 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러나 이소가이가 죽음으로써, 이소가이를 통해 외화된 자신의 결여가 더 이상 외부에 머무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²⁵⁾

한편, 최규식은 이소가이의 모친에게서 그가 죽기 전 자신의 앞으로 한 통의 편지를 남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본가로 찾아간다. 편지에는 “정상적인 세계”에서 “일찌감치 탈락해버린 낙제 인간”(141)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자조 섞인 말이 적혀 있고, 최규식은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소가이의 집에서 최규식이 그의 여동생 미찌꼬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미찌꼬 역시 연구나 이소가이와 같은 위상을 지닌다는 점이다. 최규식은 그녀와의 정신적인 교감보다는 성행위

25) 앞서 각주를 통해 서술한 것처럼, 「흙의 슬픔」은 「얼어붙은 입」과 비슷한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해당 소설에서도 주인공은 독서를 통해 자신의 불안을 유예하려고 하지만, 결국 독서라는 행위가 “한때의 위안은 필연적정 자기를 붙들고 놓지 않는 아픔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주는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 해당 소설에서도 최규식과 마찬가지로 ‘교오꼬’라는 일본인 여성을 통해 “아픔을 구원받을 무엇인가를 육감으로 느끼”게 된다. (김학영, 「흙의 슬픔」, 위의 책, 29면) 그러나 「흙의 슬픔」에서 교오꼬는 이소가이와 마찬가지로 ‘타자’와의 소통 불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주인공은 결국 자신의 불안을 덮는 데 실패하게 된다.

라는 육체적 관계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그녀와의 성행위가 몰입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다.

나는 참으로 마음이 평화롭고 안정된 기분이었다. 성을 향유하는 포근한 시간이야말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에너지 레벨이 낮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내 마음은 최고로 안정되고 안심이 되는 것이었다.

여기에서는 말이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말이 전혀 필요치 않는 행위, 말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러한 행위가 성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층 나의 심신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겠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는데도 숫제 언어가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참되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른다.

몸을 다그어 누를 때마다, 미찌꼬는 상체를 젖히고 한껏 벌린 두 손으로 시트를 움켜쥐면서 신음했다.

마치 경련이라도 일으킬 듯 떨리는 목청, 그 마비된 음성은, 미찌꼬의 입에서 새어 나오다가 보다는, 좀 더 깊은 데서, 복부의 그 안면에서 힘에 눌리어 바로 토하는 낮고, 둔중하고, 힘이 배어 있는 음성 그런 것이었다. (183~184)

최규식에게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란, ‘말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최규식이 미찌꼬와의 그것에 집착하는 이유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보다 언어를 통한 발화가 전혀 필요하지 않아 안정감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육체적 관계를 맺는 시간 동안은 어떠한 발화나 언어도 필요하지 않은, 새어 나오는 신음마저도 ‘말더듬이’처럼 언어로 구성되기 이전의 ‘마비된 음성’으로 가정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이소가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결여가 외부에 노출될 위기에 처한 최규식은 미찌꼬를 대안으로 언어나 발화의 요구로 인한 압박과 불안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이

다. 즉 그에게 성행위에서 비롯되는 쾌락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을 넘어, 자신의 위치를 찾고자 하지만 끝내 그 시도가 좌절된 주체의 욕망이 환상적인 형태로 치환된 셈이다.

그러나 이는 앞선 두 시도와 마찬가지로 언어가 필요 없는 육체적 관계조차 실은 ‘타자’와 함께 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다시 좌절되기에 이른다.

몸을 다그어 누르면서 나는 문득, 미찌꼬는 어떤 감각에 취해 있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쾌감만을 느끼고 있을 뿐, 미찌꼬의 쾌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계인 이 성행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그 한 가지 행위를 하면서도, 두 사람이 똑같은 관능의 환희 앞에 몸을 맞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조차 그 환희가 각각의 것이 되어, 서로가 별도의 환희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자, 나는 다시금 아까의 연구회 일이 회상되었다. 그곳에서의 나의 보기 흉한 말더듬이 현상이 다시 명료하게 떠올랐던 것이다.

미찌꼬는 그러한 나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말더듬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지극히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할 뿐, 말더듬이의 처지가 어떤 것인지, 말더듬이의 가슴속이 얼마만큼 죄고 아픈 것인지, 그 가슴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와글와글 소용돌이치고 있는지, 그런 일에 대해서 미찌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184)

미찌꼬의 “관능의 환희”(184)를 본 최규식은 갑작스럽게 미찌꼬가 어떤 감각에 취해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이 미찌꼬의 쾌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는 곧 비언어적인 행위이면서도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행위에서조차 타자의 감각이 공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즉 발화 상황과 마찬가지로 육체적 관계에서도 타자와의 근본적인 소통 불가능성

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최규식이 비로소 ‘말더듬이’라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타자로서 자신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임을 수용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후 최규식은 미찌꼬의 환희의 감각을 자신이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미찌꼬 역시 자신이 ‘말더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의 말더듬이 현상으로 겪는 고통은 나 밖에는 모르며, 또 나만 알고 있으면 죽한 것이고 거기 대해서 미찌꼬는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게 되어 있”(185)다고 말한다.

미찌꼬는 이소가이가 죽은 이후 유일하게 최규식을 “순수한 한 인간으로 대”(175)해주는 사람이며, “존재의 근원적인 지점에 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176)던 대상이다. 그녀는 최규식에게 말더듬이로 인한 고통과 불안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인물이자 그렇기에 한 인간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자기충족적인 구원의 이미지”²⁶⁾가 되는 셈이다. 미찌꼬는 “청각이 아닌 촉각의 세계에서만 가능해 보이며 찰나적일 수밖에 없는”²⁷⁾, 즉 언어 없는 합일이 가능해 보이는 착시이자 또 하나의 상상적 이미지였다. 그러나 그녀 역시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최규식의 결여를 해소해 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전환 이후 최규식은 그녀의 “욕망을 외면한”(186)다. 따라서 그의 태도는 단순히 성적 쾌감이 질정에 다다른 후에 찾아오는 허무나 허탈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발화가 필요하지 않은 육체적 관계를 통해서라도 ‘말더듬이’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끝내 좌절되는 순간 그 자체이다.

다만, 미찌꼬와의 관계를 단순히 언어 없는 합일의 가능성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 이는 최규식이 미찌꼬를 자신의 결여를 유예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여기고 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미찌꼬는 이소가이가

26) 윤송아, 위의 논문, 85면.

27) 이재봉, 위의 논문, 416면.

자신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지목한 존재인데, 앞서 언급했듯, 이는 최규식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최규식이 미찌꼬를 매개로 합일의 가능성을 찾은 이유 역시 애초에 둘 사이에는 육체적인 행위가 전제되지 않더라도, 서로 “말이 필요치 않”(175)은 관계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행위에 대한 집착, 즉 미찌꼬에 대한 애정을 넘어서는 ‘무의식’의 결여로 인해 이러한 시도는 좌절되기에 이른다. 결국 미찌꼬를 통해 이소가이가 도달할 수 없었던, 그리고 자신이 계속 도달하고자 했던 “자신의 생활에 대한 충실과 행복”(182)을 찾고자 했지만, 미찌꼬 역시 연구실의 동료들과 다름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바꿔 말하면 자신은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이 주체에게 되돌아오는 순간, 그것은 실패로 귀결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얼어붙은 입」에서 형상화된 실패이자 좌절의 서사는 의미 없이 구성된 파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연구와 이소가이, 그리고 미찌꼬는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서는 자신의 결여를 직접 감당하지 않고 대신 그것을 봉합하려는 하나의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의 기원에는 과거와 현재 사이에 발생한 주체의 분열이 놓여있다. 연구는 몰입을 통해 언어의 문제를 잠시 유예해 상상계적 동일시를 유지하는 행위이고, 이소가이는 자신의 결여를 외부에 위치시킬 수 있는 거울이었으며, 미찌꼬는 언어를 초월한 합일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주체의 균열이라는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한다. 최규식은 과거와 현재라는, 내면에 양립할 수 없는 두 상징적 질서 사이에 놓인 채 자신을 온전히 위치시킬 안정된 기표를 끝내 선택하지 못한 주체이다. 그는 불안정성을 견디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했지만, 그것은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상상적 동일시의 매개는 근본적으로 주체의 결여를 완전하게 봉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실패는 각각의 대상이 지닌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상징 기표의 요구 사이에서 자신의 자

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주체의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는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인지라—」

라고 했던, 이소가이의 수기에 씌어진 말이 생각났다.

그러나 그것은, 이소가이에게만 한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도 그대로 들어맞는 말이 아닐까? 육신이 피부에 둘러싸여 있듯이 사람의 마음도 피부에 둘러싸여 있건만, 그런데도 그 피부에 둘러싸인 인간의 마음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으며, 따라서 마음과 마음을 융합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마치 포경자가 성행위를 할 때처럼, 끝끝내 선명한 접촉감은 느껴보지 못하고 끝날 수 밖에 없는 노릇이 아닐까.

서로가 이해한다고 하는 것도 다만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닐까.

또한 나를 말더듬이라고 하여, 남모르게 마음 속으로 연민의 정을 품으리라 믿어지는 그런 사람들, 말더듬이를 조소함으로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과연 자기를 완전하게 남에게 전달할 수가 있을 것인가. (중략)

「나는 입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인지라—」

모세가 한 그 말은, 단순히 말더듬이 모세로서 입에 담은 말이 아니라, 말 잘하는 달변가도 포함시킨,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참되게 입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소가이의 말마따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단지 하나님 여호와 뿐이며, 그 아래 널린 모든 인간은, 그야말로 모조리 입에 할례를 받지 않고 있고, 또한 받을 수도 없으며, 그 마음에도 할례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186~187)

말이 필요 없는 육체적 관계에서도 결국 타자와의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최규식은 문득 자신에게 남긴 이소가이의 편지 내용을

곱씹기 시작한다. 최규식은 스스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라고 규정한 이소가이의 편지를 전유한다.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규정성에 담긴 의미를 곧 자기 자신을 타자에게 완전하게 전달할 수도, 이해시킬 수도 없다는 사실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규식이 말더듬이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조건으로 확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곧 자신에 대한 자기규정의 차원을 넘어, 일본인과 조선인, 나아가 모든 인간을 하나의 보편적 범주 안에 귀속시키려는 시도에 가깝다.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던 모세의 서사로 되돌아가 보자. 작품에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언어적 결함으로 인해 고뇌에 시달리는 모세의 모습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결말에 이르러서는, 최규식이 이소가이의 편지로 인해 인식의 확장 시도를 한 이후부터 모세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전반부 모세는 말할 수 없음의 개인적 형상으로 등장하지만, 미찌코와의 관계를 거친 후에는 스스로를 완전하게 타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인간 일반을 일컫는 ‘대표자’로서 등장한다. 이는 최규식이 자신의 결여를 새로운 방식으로 은폐하기 위한 한 기제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결여를 오히려 모든 인간이 가진 결여로 규정함으로써 ‘타자’를 자기화하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거듭되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타자와 자신 사이의 간극을 봉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주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사람을 자신과 같은 말더듬이로 만들어 버리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적 전환은 곧 ‘내면적 자의식’을 ‘세계’의 시선에 대립시킬 수 있는 근거로 소유하게 되는 자기방어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²⁸⁾

28) 다케다 세이지, 위의 논문, 143면. 한편, 김학영이 작품에 모세를 호출한 이유를, 상징 질서 앞에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주체의 모습을 통해 자신들에게 동일화를 요구하는 그 기표의 전능함에 대해 되묻고자 한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단순히 신의 명령을 따르는 인물로만 등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성경 속 모세는 끊임

4. 맺음말

지금까지 본 논문은 「얼어붙은 입」의 ‘말더듬이’ 모티프를 실제 작가의 신체적 결함이나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소외를 표상한다는 기존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이를 ‘식민화된 주체’가 경험하는 유년 체험과 현재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분열과 자기 동일화 실패의 증상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얼어붙은 입」은 ‘말더듬이’라는 실제 작가의 신체적 결함을 반영한 모티프인 동시에, 서로 다른 언어(기표)가 요구하는 동일화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식민화된 주체’의 분열을 가시화하는 서사적 형

없이 자신(들)의 존재론적 근거인 신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출근 나타난다. 4장 24절에서 모세는 자신의 아들에게 언약의 외적 증표인 ‘할례’를 요구하는 신 앞에서 결단을 유보한 채 망설이는 태도를 보인다. 명령 불복종으로 신이 자신을 죽이려는 상황에서도 그는 주저한다. 결국 그의 아내인 심보라가 대신 아들의 할례를 이행하게 됨으로써 모세는 목숨을 건지지만, 모세가 보인 환상과도 같은 주체의 짧은 망설임은 거둬지지 않는다. 이후 모세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법적 질서로서 초월적 존재인 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율법의 석판을 깨뜨리는 행위를 통해, 모세에게는 억압된 것, 즉 찰나의 주저함의 순간이 반복해서 주체에게 되돌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모세의 부재가 길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아론은 금불이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든다. 모세는 금송아지로 표현된 신의 이미지에 분노하여 석판을 부수는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다. 물론, 성경에서 그가 율법의 석판을 던져서 깨버리는 행동은 우상숭배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한편으로 이는 상징 질서가 그만큼 ‘불완전’하고 ‘비전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대 민족의 사제(司祭)였던 모세가 순간적으로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그만큼 법의 질서가 취약하다는 사실의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소 확대 해석인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해당 소설에 나타난 모세의 서사가 중요한 이유는, 모세가 신 앞에 망설이거나 율법의 석판을 부숨으로써, 상징적 질서가 요구하는 동일화의 순간에 균열의 틈새가 발생한다는 것, 따라서 상징계는 결코 완전하며 전능하지 않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얼어붙은 입」에 재현된 최규식의 실패와 절망의 서사는 결국 특정 기표에 대한 자기 동일화의 순간에 주저하고 저항하는 주체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성장한 최규식에게 ‘일본어’는 유년기부터 자연스럽게 체화한 언어이지만, ‘패전-해방’ 이후에는 그것과 결별하고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의식과 조선어를 새롭게 획득해 주체를 재정립하길 요구받는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 완전하게 단절하는 것도, 조선어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도 최규식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소설 내에서 그가 겪는 혼란은 어느 한면의 상징 질서를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동일화의 요구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자신을 대표하는 기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세 번의 시도는 이러한 불안을 직접 감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선택을 잠시 유보하기 위해 마련된 우회적인 방식이며, 그것이 결국 모두 실패한다는 것은 ‘식민화된 주체’가 감당해야 할 주체의 분열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얼어붙은 입」에서 ‘말더듬이’는 단순한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는 주체의 근원적 균열이자 분열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증상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가 김학영을 비롯한 재일조선인 2세를 ‘식민화된 주체’로 규정하려는 이유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에 놓여 있다. 일찍이 “자이니치” 정신사(史)를 구축하고자 했던 윤건차는, “천황을 정점에 둔 일본의 권위적 질서 체계를 내면화해왔던 조선인에게 해방은 어떠한 매개나 자기 변혁도 없이 맞이한 정치적 사변”이었으며, “조선인으로서 주체를 세우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위해서 스스로의 내면에 자리 잡은 ‘황국신민’의 잔재, 곧 내면화된 천황제와 좋은 싫든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²⁹⁾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적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일조선인 ‘문학’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재일조선인 ‘문학’이 결국 ‘사실’만으로는 다 그려낼 수 없는 것을 ‘사실적’

29)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자이니치 정신사·남·북·일 세 개의 국가 사이에서』, 한겨레출판, 2016, 9면.

으로 그려내고자 했던 시도에 다름 아니다.

김학영은 내면화된 과거와 현재 사이의 봉합 불가능한 균열을 주로 주인공의 '실패'와 '좌절'의 서사를 통해 재현해 낸다. 본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 주인공 최규식은 연구와 실험, 친구와의 관계, 일본인 여성과의 육체적 관계를 통해 유년 시절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존재하는 내면의 균열을 감당하고자 하지만, 이는 끝내 실패로 귀결된다. 지면상 제한으로 인해 본 논문에서는 「열어붙은 입」만 분석했지만, 이러한 실패와 좌절의 서사는 김학영 문학이 가진 개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불우의식의 반영이나 패배주의가 아니라,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재일조선인 2세 내면에 형성된 '분열'은 봉합될 수 없음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자면, 분열로 인한 '불안'은 단순히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불안을 껴안으면서 국민국가나 민족이라는 상징적 질서가 가진 모순과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성찰적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이 된 셈이다.

이런 맥락에서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드러내면서 주체가 가진 분열을 드러내는 김학영의 소설은, '식민화된 주체'로서 재일조선인 2세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복잡하고도 중층적인 위치와 체제에 대한 성찰적 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법은 김학영의 작품 세계 전반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적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김학영, 강상구 역, 『얼어붙은 입』, 한진출판사, 1985.
金鶴泳, 『土の悲しみ-金鶴泳作品集Ⅰ』, クレイン, 2004.
金鶴泳, 『土の悲しみ-金鶴泳作品集Ⅱ』, クレイン, 2006.

2. 단행본 및 논문

- 권문경,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에 나타난分身구조와 작가의 자살 욕망 지우기」, 『일본어문학』 54, 2011, 115-134면.
- 권성우,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에 대한 세 가지 해석과 논점」, 『한민족문화연구』 60, 2017, 71-102면.
- 김환기, 「김학영의 〈얼어붙은 입〉론」, 『일어일문학연구』 39, 2001, 269-286면.
- 김환기, 「김학영 문학과 恨·恨의 내향적 승화를 중심으로」, 『일본학』 21, 2002, 187-207면.
- 다케다 세이지, 재일조선인문화연구회 옮김, 『재일』이라는 근거』, 소명출판, 2016.
- 릴라 간디, 이영옥 옮김,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 현실문화연구, 2000.
- 브루스 핑크, 이성민 옮김, 『라캉의 주체:언어와 향유 사이에서』, 도서출판b, 2023.
- 송명희·정덕준, 「재일 한인소설 연구-김학영과 이양지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62, 2007, 427-448면.
- 이수진, 「프로이트와 라캉, 불안의 개념화와 정신분석 실천 함의: 불안, 행위(로)의 이행 너머 환상의 횡단으로」, 『현대정신분석』 23, 2021, 9-45면.
-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 『자이니치 정신사-남·북·일 세 개의 국가 사이에서』, 한겨레출판, 2016.
- 윤송아, 『재일조선인 문학의 주체 서사 연구: 가족·신체·민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윤주연, 「라캉의 관점에서 본 디아스포라와 주체」, 『통일인문학』 99, 2024, 287-316면.
- 이재봉, 「틈새 인간의 말더듬이 존재론-김학영과 그의 문학」, 『현대문학이론연구』 43, 2010, 389-421면.
- 이한창, 「소외감과 내향적인 김학영의 문학세계」, 『일본학보』 37, 1996, 377-390면.
- 이한창, 「일기와 작품을 통해 본 김학영의 자살 원인」, 『일본어문학』 47, 2010, 339-365면.
- 존 리, 김혜진 옮김, 『자이니치』, 소명출판, 2019.

하재연, 「식민지 문학 연구의 역사주의적 전환과 전망」, 『상허학보』 35, 2012, 11-51면.

한수영, 『전후문학을 다시 읽는다』, 소명출판, 2015.

<Abstract>

The Division of the ‘colonized subject’ and ‘Stuttering’

– A Rereading of Kim Hak-young’s ‘The Frozen Mouth’

Choi, Seok Yeol

This study aims to reexamine Kim Hak-young’s “The Frozen Mou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lonized subject” formed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the imperial-colonial system to the nation-state system. To date, “The Frozen Mouth” has primarily been discussed in terms of the national identity and diasporic experiences of Koreans in Japan, while the protagonist’s stuttering has likewise been understood as a device representing linguistic deficiency or identity confusion. Such interpretations, however, do not sufficiently account for the fissures that the experience of colonialism leaves in the subject’s unconscious and the resulting failure of self-identity.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The Frozen Mouth” based on Han Soo-young’s concept of the “colonized subject” and Lacanian psychoanalytic theory. It reads the recurring motifs of stuttering and Moses, the protagonist’s research activities, and his relationship with Michiko as narrative devices that reveal the division of the colonized subject, and demonstrates that stuttering is not merely a linguistic defect but a symptom of the colonized subject’s inability to become fully integrated into the symbolic order. Furtherm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curring narrative of failure throughout the work results from the inscription of the experience of colonialism in the subject’s unconscious, revealing a process in which attempts to attain self-identity

ultimately become frustrated. Ultimately, by reading “The Frozen Mouth” as a text that represents the traces left by the experience of colonialism in the subject’s unconscious, this study seeks to offer a new understanding of Kim Hak-young’s literature beyond the question of national identity, focusing instead on the formation of the colonized subject and the failure of self-identity.

Key words: Zainich, Kim Hak-young, colonized subject, diaspora, The Frozen Mouth, Jacques Lacan, psychoanalysis

투 고 일: 2026년 8월 10일

심 사 일: 202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2026년 9월 28일